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3.7.11.(화) 중간	배포	2023.7.10.(월)		
담당부서	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업무팀	책임자	국 장	정해석	(02-3145-7240)
		담당자	팀 장	최판균	(02-3145-7244)

'23.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(잠정)*

* 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(적정성 점검 예정)

1. 현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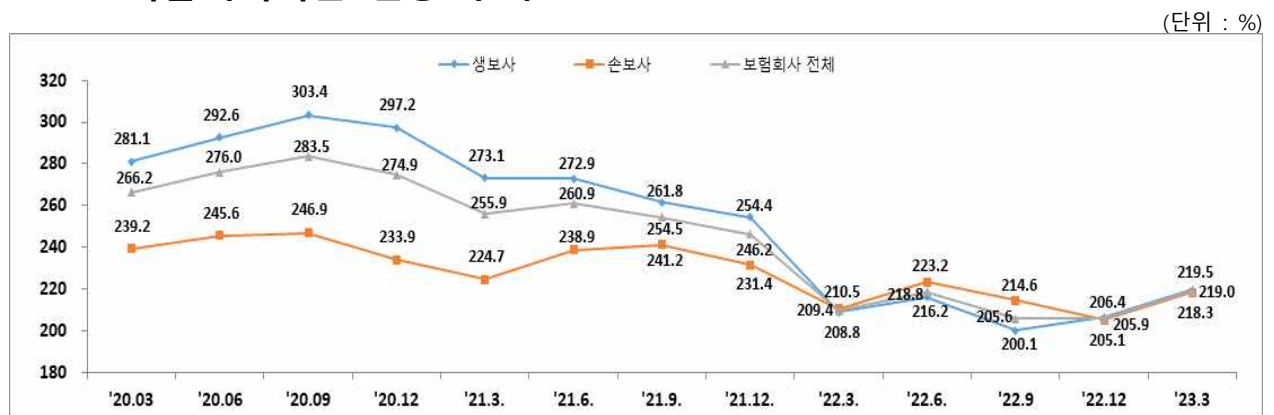
- (경과조치 後) '23.3월말 경과조치* 적용 後 보험회사의 K-ICS 비율**은 219.0%로 '22.12월말 RBC비율(205.9%) 대비 13.1%p 상승

* 19개 보험사(생보 12개사, 손보·재보 7개사)가 경과조치를 신청

** K-ICS 비율 = 가용자본 ÷ 요구자본

- 생보사 219.5%('22.12월말 RBC 比 +13.1%p), 손보사 218.3%('22.12월말 RBC 比 +13.2%p)

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



주) '23.3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後 K-ICS비율

<참 고>

경과조치 적용 前 K-ICS 비율

- 경과조치 적용 前 K-ICS비율은 198.1%로 '22.12월말 RBC비율 (205.9%) 대비 7.8%p 하락

- 생보사 192.7%('22.12월말 RBC 比 △13.8%p), 손보사 206.2%('22.12월말 RBC 比 +1.0%p)

2.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

□ **(가용자본 ↑)** '23.3월말 경과조치 前 K-ICS 가용자본은 244.9조원으로 RBC 가용자본(139.7조원) 대비 105.1조원 증가

- 이는 금리하락*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, RBC에서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(CSM)의 가용자본 인정 효과 등에 기인

* 국고채(10년) 금리 : 37bp 하락('22.12월말 3.73% → '23.3월말 3.36%)

□ **(요구자본 ↑)** '23.3월말 경과조치 前 K-ICS 요구자본은 123.6조원으로 '22.12월말 RBC 요구자본(67.9조원) 대비 55.7조원 증가

- 이는 신규 보험위험(장수·해지·사업비·대재해 등) 추가 및 신뢰수준 상향(99.0→99.5%) 등이 반영된 결과

□ **(경과조치)**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등으로 가용자본이 2.1조원 증가하고, 신규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요구자본 10.8조원 감소

- 경과조치 後 K-ICS비율(경과조치 前 K-ICS비율 比) 20.9%p 상승

< 지급여력비율 제도변경(RBC → K-ICS) 영향¹⁾ >

구 분	RBC (A)	K-ICS 경과조치 前	경과조치	K-ICS 경과조치 後 (B)	증감 (B-A)
가용자본(조원)	139.7	244.9	+2.1	247.0	+107.3
요구자본(조원)	67.9	123.6	△10.8	112.8	+44.9
지급여력비율(% , %p)	205.9	198.1	+20.9	219.0	+13.1

3.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구성

□ **(가용자본*)** K-ICS 재무상태표 순자산은 233조원으로 보통주 자본금(26조원), 이익잉여금(104조원), 기타포괄손익누계액(33조원), 조정준비금** (65조원) 등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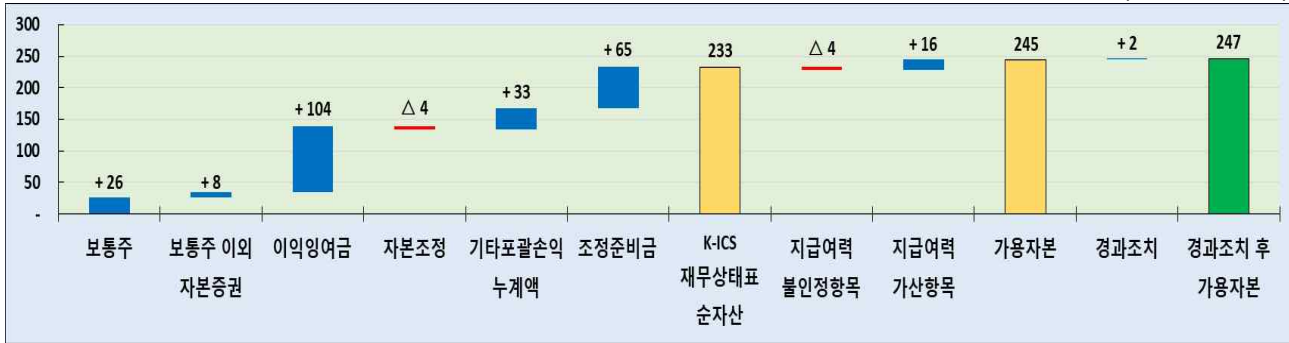
* 가용자본 = K-ICS 재무상태표 순자산 + 지급여력 가산금액 - 지급여력 불인정 금액

** K-ICS 재무상태표 순자산과 보험감독목적회계(SAP) 재무상태표 순자산의 차액

- 순자산에 지급예정 주주배당액 등 지급여력 불인정항목 4조원, 후순위채무 등 지급여력 가산항목 16조원 및 자본감소분 등 경과조치 2조원을 반영한 경과조치 後 가용자본은 247조원

< K-ICS 가용자본 구성 >

(단위 : 조원)



□ (요구자본) 요구자본은 생명·장기손보위험액 85조원, 시장위험 60조원, 신용위험액 25조원, 운영위험 8조원 등으로 구성

- 이에 위험간 분산효과 47조원, 법인세효과* 31조원을 차감한 요구자본(경과조치 後) 금액은 113조원

* K-ICS 위험반영에 따른 순자산금액의 감소로 미래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

< K-ICS 요구자본 구성 >

(단위 : 조원)



<참고> EU Solvency II 도입과 비교

- ◇ '16년 SolvencyII 시행에 따른 EU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舊)지급여력비율 대비 경과조치 前 △95%p, 경과조치 後 △23%p

구 분	舊) 지급여력비율	新) 지급여력비율		증감	
		경과조치前	경과조치後	경과조치前	경과조치後
EU	216%	121%	193%	△95%p	△23%p

* 자료출처 : Report on long-term guarantees measures and measures on equity risk(2016.12.16.), Financial Stability Report June 2016(2016.6.1.)

4. K-ICS 경과조치 적용현황

- 경과조치 적용 회사의 K-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前 대비 79.1%p(139.8%→218.9%) 상승
 - 자산·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가용자본이 1.9조원 상승
 -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경과조치로 8.1조원 하락, 주식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경과조치로 각각 1.2조원 하락

< 경과조치 종류별 K-ICS 비율 효과 >

구 분	경과조치 적용 前·後 K-ICS비율(% , %p)			경과조치 종류별 효과(조원)			
	前	後	차이	가용자본	요구자본		
				자본감소분	보험	주식	금리
신청회사 계	139.8	218.9	+79.1	+1.9	△8.1	△1.2	△1.2

주)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는 모수에서 제외

5. 향후 감독방향

- '23.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後 지급여력비율은 219.0%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
 - 다만, 최근 경제상황,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 강화 계획
-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·감독 추진
 -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회사가 매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 검증보고서 적정성 검토
 - 경과조치 적용 前 100%미만 회사*가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(~'23.8월말) 개선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매년 이행실적 관리

* KDB생명, 푸본현대생명, IBK연금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-1

보험회사별 K-ICS비율 현황(잠정)

[생명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2.12월말	'23.3월말		증감 (B-A)
	RBC (A)	K-ICS (경과조치 前)	K-ICS (B, 경과조치 後)	
삼성	244.0	219.5	-	△24.5
한화	162.2	181.2	-	+19.1
교보	180.6	156.0	232.4	+51.7
농협	147.4	175.5	325.5	+178.1
흥국	152.2	105.4	152.7	+0.5
미래에셋	179.6	218.4	-	+38.8
신한	267.7	225.5	-	△42.2
KDB	162.5	47.7	101.7	△60.8
DB	141.9	202.4	361.0	+219.1
KB라이프 (舊 푸르덴셜)	248.4	285.1	-	+36.7 ^{주1)}
KB라이프 (舊 KB생명)	130.5			
IBK	182.8	68.7	165.9	△16.9
DGB	119.0	158.5	294.8	+175.9
하나	186.3	117.4	158.6	△27.7
교보플래닛	261.0	163.8	254.4	△6.5
동양	173.2	162.2	-	△10.9
메트	188.8	311.7	-	+122.9
ABL	198.6	111.4	163.6	△34.9
AIA	290.8	241.1	-	△49.8
푸본현대	171.2	△0.6 ^{주2)}	128.3	△42.9
카디프	499.2	359.7	-	△139.5
라이나	286.5	314.7	-	+28.2
처브	121.9	198.2	386.0	+264.1
전 체	206.4	192.7	219.5	+13.1

주1) (現) KB라이프 K-ICS비율과 (舊) 푸르덴셜 RBC비율 사이의 차이

주2) 푸본현대생명은 자산·부채 듀레이션 갭이 큰 상황에서 시가평가에 따라 순자산이 감소 → 유상증자·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지급여력비율 상승 예정

[손해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2.12월말	'23.3월말		증감 (B-A)
	RBC (A)	K-ICS (경과조치 前)	K-ICS (B, 경과조치 後)	
삼성	285.0	275.2	-	△9.7
DB	170.8	210.5	-	+39.7
현대	174.6	178.6	-	+3.9
KB	171.7	194.0	-	+22.3
메리츠	165.7	202.2	-	+36.5
한화	153.3	176.7	254.4	+101.1
롯데	150.8	137.7	178.3	+27.5
흥국	163.3	132.3	204.0	+40.6
농협	210.0	237.7	330.2	+120.2
MG	43.4	65.0	82.6	+39.2
하나손보	217.2	162.4	-	△54.8
캐롯손보	505.5	262.5	-	△243.1
카카오페이	1,957.1	1,354.8	-	△602.3
AXA	234.2	230.8	267.0	+32.9
AIG	404.2	259.9	-	△144.3
ACE	371.6	290.0	-	△81.6
미쓰이	302.1	182.6	-	△119.5
알리안츠	343.6	178.1	-	△165.5
신한EZ손보	620.7	507.4	-	△113.3
퍼스트어메리칸	258.4	131.0	-	△127.4
코리안리	180.8	184.0	-	+3.2
스위스리	198.1	207.3	-	+9.3
SCOR	183.3	140.2	166.3	△16.9
RGA	345.8	179.2	-	△166.6
뮌헨리	133.9	138.5	-	+4.6
제네럴리	413.2	291.8	-	△121.4
하노버리	246.5	195.8	-	△50.7
동경해상	291.9	268.7	-	△23.3
퍼시픽라이프	253.7	150.0	-	△103.7
팩토리	3429.6	540.5	-	△2889.2
서울보증	381.9	413.3	-	+31.4
전 체	205.1	206.2	218.3	+13.2

붙임-2

보험회사별 K-ICS 경과조치 적용에 의한 효과

(단위: %, %p, 억원)

구 분	경과조치 적용 前·後 K-ICS 비율 ^{주)}			경과조치 종류별 효과 ^{주)}			
	前	後	차이	가용자본	요구자본		
				자본감소분	보험	주식	금리
교보생명	156.0	232.4	+76.3	-	△23,122	△3,511	-
농협생명	175.5	325.5	+150.0	-	△9,732	△1,155	△7,117
흥국생명	105.4	152.7	+47.3	-	△6,709	△748	-
KDB생명	47.7	101.7	+54.0	+3,430	△2,722	△1,769	-
DB생명	202.4	361.0	+158.7	-	△5,863	-	-
IBK연금	68.7	165.9	+97.3	+2,190	△734	△259	△1,230
DGB생명	158.5	294.8	+136.3	-	△1,840	△562	-
하나생명	117.4	158.6	+41.2	+458	△428	△356	-
교보라이프	163.8	254.4	+90.6	-	△171	△35	-
ABL	111.4	163.6	+52.3	-	△2,646	△1,238	-
푸본현대	△0.6	128.3	+128.9	+12,701	△637	△1,172	△2,288
처브라이프	198.2	386.0	+187.8	-	△717	-	-
한화손보	176.7	254.4	+77.7	-	△9,895	-	-
롯데손보	137.7	178.3	+40.6	-	△4,276	-	-
흥국화재	132.3	204.0	+71.7	-	△6,043	△827	△709
농협손보	237.7	330.2	+92.6	-	△3,102	-	-
MG손보	65.0	82.6	+17.5	-	△1,349	△285	△506
AXA	230.8	267.0	+36.3	-	△288	-	-
SCOR	140.2	166.3	+26.1	-	△553	-	-
신청회사 계	139.8	218.9	+79.1	+18,779	△80,827	△11,917	△11,851

주)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는 모수에서 제외